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II 코린토 6, 16)

9월 20일 한국 순교자 대축일

오늘을 한국 순교자를 기리는 날이며,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의 본당의 날이다. 미국의 거의 모든 성당의 주보성인들은 한국 순교자 중의 한 분이거나 한국 순교자 모두를 주보성인으로 정한다. 따라서 미국내의 거의 모든 한인 성당들이 오늘 본당의 날로 정하고 축하하지 않을까 싶다. 사실 오늘은 시카고 지역 아시안 미사를 추가경일이 집전하시는 날이지만, 시카고 내 한인 본당들은 본당의 날 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고 싶어 하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도 묵직한 가르침을 던지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 9,23) 하신다. 마태오 복음이나 마르코 복음에는 없는데, 루카 복음에만 있는 단어가 ‘날마다’란 단어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거창하게 마음 한 번 고쳐먹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목에 예쁘게 걸고 다니는 금목걸이 액세서리 같은 게 아니며, 마음에 안 들면 며칠 놀다 팽개쳐버리는 취미 생활이나 오락도 아니다. 십자가는 매일매일 갱신해야 하는 삶의 출근도장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가장 악하고 못난 성격일 수도 있고, 피하고 싶지만 평생 짊어져야 하는 환경이나 질병일 수도 있다. 또는 도저히 마음이 안 맞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 낯선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동행하며, ‘오늘 딱 하루만 더 참아보자’ 하고 비장하게 다짐하는 그 매일의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이다.

"예휴, 안 그래도 삶이 피곤한데 매일 십자가까지 짊어지라니 너무 하신 거 아닌가 하고 볼멘소리가 튀어나오지만,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준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로마 8,37) 십자가는 결코 나 혼자 외롭게 끙끙대며 짊어지는 짐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에는 이미 예수님 자신이 못 박혀 계신다. 즉, 내가 내 십자가를 껴안는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동시에 껴안게 되는 셈이다. 나 혼자가 아니라 [십자가 + 예수님 + 나]라는 환상의 3인조 조합이 결성되는데, 세상에 넘어서지 못할 시련이 있을까?

오늘 제1독서인 지혜서(3장)를 보면,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시련을 겪은 의인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세상 사람들의 알팍한 잣대로 보면 그들은 "쫓쫓, 불쌍하게 파멸했네, 징벌을 받았네" 하고 혀를 찰지도 모르지만, 하느님의 눈은 다르다. 고난 속에서 부단히 쌓아 올린 신뢰와 믿음이 습관이 되고 덕이 된 이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불사의 희망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지혜서는 역설한다.

오늘은 오직 주님을 향한 열정 하나로 목숨을 바쳤던 한국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날이다. 순교라고 하면 박해 시대처럼 목이 칼에 베이거나 감옥에 갇히는 피 흘림의 순교를 떠올린다. 하지만 라틴어로 순교를 뜻하는 단어 martyrium의 원래 뜻은 ‘증거(testimony)’다. 즉, 내 말과 생각과 행위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든 삶이 바로 순교라는 말씀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날, 칼날 아래 목을 내밀 일은 없다. 그래서 오늘날의 진짜 박해자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숨구치는 화를 주님 생각하며 한 번 꼭 참아주는 것! 나에게 상처 주고 속 뒤집어놓는 사람을 억지로라도 용서해 보려고 기도하는 것, 나태함과 이기심을 누르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등등... 이것이 내 안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십자가에 박아두는 현대의 영적 순교일 것이다.

평생 십자가를 지고 갈 생각에 벌써부터 어깨가 빠근하신가?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오늘 딱 하루만 주님 생각해서 참아보자, 오늘 하루만 내 십자가를 웃으며 안아보자." 이렇게 매일의 다짐을 날마다 갱신해 살아가한다면, 어느새 우리 삶도 순교자들처럼 온통 주님의 향기로 물들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과 자비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본당의 날인 오늘 한국 순교자의 정신을 다잡는 우리였으면 한다. 순교자의 후예답게 우리 어깨에 놓인 십자가 속에 계신 예수님을 안고 가는 우리였으면 한다.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시간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봉헌	보편지향기도
26년 9/20	10시	본당의 날				
26년 9/27	9시	이신애(율리안나)	김주영(이냐시오)	백진주(에밀리아나)		김화룡(수산나)
	11시	황정순(크리스티나)	심묘현(안젤라)	박만석(마뉴엘)		박정환(라파엘) 박현주(크리스티나)

공동체 소식



신앙을 위해 생명을 바친 모든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용기와 사랑을 뽐냅니다.

◎오늘은 한국 순교자들의 순교정신을 기리며 경축하는 본당의 날입니다. 미사 후 식사, 오락 행사에 참여하시며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일시: 9월 25일(금) 오후 7시 30분
미사신청 하실 분들은 9월 20일까지 접수하십시오. 사진을 제출하실 분은 미리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환영 올드레아
▶일시: 9월 27일(일) 오전 10시 30분, 신관 1호실
중북부 시카고 여성 18차 꾸르실료 교육을 수료하신 이향례(자넷), 임장미(모니카), 표혜진(레지나)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모두 오셔서 교육을 마친 세 분을 환영해 주십시오!

◎빈첸시오 월레모임
▶일시: 9월 27일 9시 미사 후 신관 4호

◎구역반장모임
▶일시: 9월 27일(일) 9시미사 후 10시 30분- 신관 1호 각반 반장님들은 참석바랍니다.

▶◎성경공부. 성경통독 안내
▶성경공부: 매주(수) 오후 2시 최에스텔 수녀
▶성경통독: 매주(목) 오후 6시 이마틸다 수녀

◎2027년 부활세레반 예비자 모집 안내 - 10월까지
▶성인 교리시간: 주일 오전 9시 30분
▶청년 교리시간: 토요일 오후 4시 30분

◎Generation to Generation 기금모금
시카고 대교구에서 실시하는 ‘세대에서 세대로’의 기금모금에 교우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수표를 쓸 때 수취인을 **G2G** 혹은 **G to G** 로 쓰십시오.
▶본당 목표: \$440,000.00 (기간:5년)

본당 대표 전화: 773 - 554 - 5426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이충구(안토니오), 고광혁(토마스), 이순영(젼마), 박경철(레오), 박병규(어거스틴), 임기홍(스테파노), 김종휘(루카), 이태식(요한), 최정자(카타리나), 최해수(스테파노), 정영옥(모니카), 최금순(글라라), 박진우(마이클), 서현숙(아네스), 박정환(라파엘)

▪감사헌금: 임장미(모니카), 이향례(자넷)

○교무금 \$ 2,335.00 ○주일헌금 \$ 1,477.00
○감사헌금 \$ 200.00 ○성모상앞 초봉헌 \$103.00
○토요,영어헌금 \$ 220.00
○성물방입금 \$ 70.00

『2026년 9월 20일 미사 지향』

▪생미사
유명주(마가렛), 엄광식(토마스), 송영현, 앤디킴(안드레아), 민충식, 황명훈, 박인미(로사), 다린 홍(Darine Hong) 탐 박(토마스), 소피아 박

▪연미사
이금구(마이클), 차연주(리사), 김선경(임마쿨라따), 이선애(마틸다),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백승재(야고보), 김진봉(베드로), 조문기(샤스팡야고보), 주영선(소피아), 이동준(베드로), 김성애(마리안나), 박효명(모니카),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

9월 22일(화)

최경애(테레사) (생미사)
김선경(임마쿨라따),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그레고리오), 백승재(야고보), 주영선(소피아), 김성애(마리안나) (연미사)

9월 23일(수) ~ 9월 26일(토)
김순열(카타리나), 오주영(카타리나), 오승오 (안드레아), 백일화(토마스), 이범두(요세피나), 백용길 (그레고리오), 백승재(야고보) (연미사)
9월 25일(금): Fr. Don (생미사)
9월 26일(토): 탐 박(토마스), 소피아박 (생미사)



링컨우드 동물병원
LINCOLNWOOD ANIMAL HOSPITAL
Dr. Young R. Kwak (요셉)
(847) 677-7070
(773) 478-7070
6431 N. Cicero Ave (Cicero & Devon)
Lincolnwood, IL 60712



Oh Happy Day
Event . Hanbok . Photo
김 지영 (보나)
ohhappydayevent.com • (847) 313-1947



명품떡집 낙원
행복한 마음으로 빚은떡 정성껏 배달해드립니다.
우 동한 (다미아노)
(773) 588-8769 (24 hours) • (224) 392-8106



ZEPHYR DENTAL
제퍼 치과
Dr. Yong Chang, DDS
(773) 796-5928
(한국어 가능)
3531 N. Western Ave, Unit B, Chicago, 60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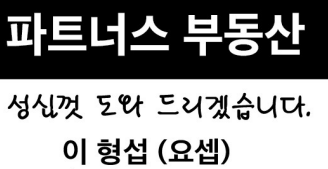
유엔아이여행사
YOUnI TRAVEL
함께해서 더욱 좋은 여행사
이 안젤라 (847) 870-4300
younitravel@gmail.com
www.younitravel.com
960 Rand Rd, Suite 219-A, Des Plaines



차 장의원
차 유진
(773) 592-8689 (24 hours)



USED CAR SALE
이 재수 (프란치스코)
(773) 615-9887
2425 Green Bay Rd, North Chicago, 60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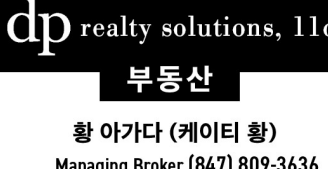
파트너스 부동산
성실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형섭 (요셉)
(773) 203-1590
615 Milwaukee Ave #40, Glenview, IL 6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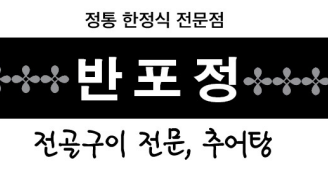
배 페인링
배 흥기 (그레고리오)
다년간의 경험, 교우 염가봉사
(847) 293-3163



Michael Zyung
정 재숙 (모니카)
(773) 761-3500
1415 W. Morse Ave, Chicago



dp realty solutions, llc.
부동산
황 아가다 (케이티 황)
Managing Broker (847) 809-3636
katie.dprealty@gmail.com
950 Milwaukee Ave, #222, Glenview, IL 6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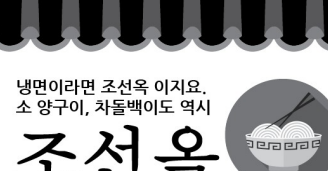
반포정
전공구이 전문, 추어탕
(773) 583-5209
3450 W. Foster Ave, Chicago



atom美
최 켜마
(847) 414-0863



Michael Zyung
정 형섭 부동산
(847) 334-3700
michaelzyung@bairdwarner.com



조선옥
냉면이라면 조선옥이지요.
소 양구이, 차돌박이도 역시
4200 N. Lincoln Ave, Chicago • (773) 549-5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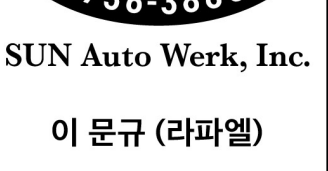
SUN
736-3883
SUN Auto Werk, Inc.
이 문규 (라파엘)
(773) 736-3883 • (773) 736-4550
4626 W. Cornelia, Chicago, 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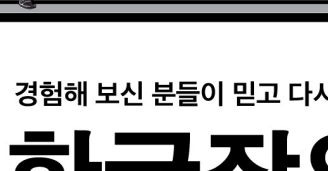
Jacob Young
CUSTOM CLOTHIERS
맞춤 정장 • 맞춤 셔츠
2214 N Lincoln Ave, Chicago, IL 60614
312.929.9069



씨제이 여행사
2026년 성지순례
장 제니스 (젬마)
(773) 969-8687
chicagoasia@gmail.com
www.cjtravelintour.com
3520 Milwaukee Ave #103, Northbrook



한국장 의사
서 정일 (토마스)
Tom Suh, F.D.
(773) 720-1004 (24 hours)



한국장 의사
서 정일 (토마스)
Tom Suh, F.D.
(773) 720-1004 (24 hours)



“숲속의 집” 클라리지 양로원
지 춘자 (요안나) (847) 224-7925 • (773) 369-6160
700 Jenkisson Ave, Lake Bluf, IL 60044

www.chicagokmcc.org E-mail: chicagokmccorg@gmail.com

한국 순교자 시카고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at Chica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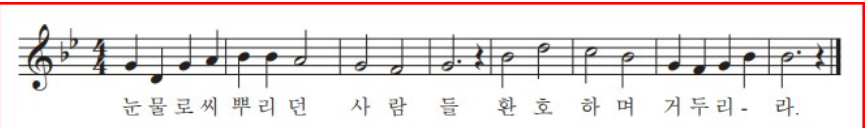
본당대표전화: Office (773) 554 - 5426
4115 N. Kedvale Ave. Chicago, IL 60641

주임사제: Fr. 김 두진(바오로) C (626) 610-6555
본당수녀: Sr. 최 재순(에스텔) C (773) 366-0797
Sr. 이 정희(마틸다) C (773) 941-2648

2026 년 9 월 20 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 말씀의 전례 』

● 제 1 독서 지혜서 3,1-9
● 화답송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31-39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 복음 루카 9,23-26
●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 오늘의 성가
입당성가 287 봉헌성가 289
성체성가 170 파견성가 285

미사 시간 안내

토요 특전미사 6:00 pm (청년)
주일 미사 9:00 am. 11:00 am.
11:00 am (English)
평일 미사 (화요일, 목요일) 7:30 pm
(수요일, 금요일) 7:30 am

본당사무실
화, 금요일 9:00 am to 3:30 pm
토요일 11:30 am to 4:30 pm
일요일 8:00 am to 2:00 pm
월, 수, 목 휴무 (Mon, Wed, Thurs)-closed
화해성사
일요일 8:30 am - 8:45 am
10:30 am - 10:45 am

혼인성사
6 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유아영세
매달 셋째 주일 11:00 am 미사 중